

안보는 나라를 지탱하는 초석이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신 동 소

1. 머리말

오늘날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화두는 안보라고 생각한다. 안보는 나라의 기둥이고 중추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평화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존립은 안보로써 지탱되며 우리 모두의 삶도 안보로써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보는 국가를 보위하며 우리에게 생명이고 분신이다. 예부터 나라의 기강과 안보는 통수권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보위하였다. 우리민족의 오천년의 역사를 일별하면 끊임없었던 외침의 쓰라린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 싸여 있으며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동서고금 역사로 통해 쇠망의 원인은 나라의 안보를 상실하였을 때에 있었던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돌이켜보면 6·25 전쟁으로 민족의 비극을 낳았던 것은 대응태세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다. 고려시대에 몽고가 입구(入寇)하여 항몽(抗蒙)하였지만 결국 내정간섭을 받아 치욕의 역사를 겪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1592~1597)으로 7년간 군·관·민의 항쟁은 단합과 안보로써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조 16대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으로 큰 국난을 겪어 역사적으로 뼈아픈 상처를 입었다.

외국의 사례를 보건대 로마제국이 멸망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시민이 의롭지 못함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안보를 저버린 데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서도 몽매 간에 잊어서는 안 될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중이다. 6·25 전쟁과 같은 민족사적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안보의식을 고취하여 안보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휴전선 155마일에 북한은 고성능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2012년 강군 선진화를 부르짖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안정과 경제발전 못지않게 국방의 안보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데 나라의 안보를 남이 지켜주는 것으로 소홀히 하여 망각하기 쉬우며 자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작금의 안보 개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나라의 안보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

래는 없으며 나라를 지키는 왕도(王道)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말이 있다. “독일인은 생각한 다음에 걷고 미국인은 뛰면서 생각하고 한국인은 뛰는 도중에 뛰는 까닭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는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

2. 가정과 안보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 가는 삶의 보금자리이며 가족의 공동체로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지상의 안식처이다. ‘가화만사성’이란 가정의 중요성을 회자한 말이며 가정이야말로 인성교육의 요람이고 참된 인간의 기본을 가르치는 도장이다.

예부터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말은 가정이 근본임을 정곡으로 표현한 말이다. 충신은 명가에서 나오고 수신제가는 나라 순화(醇化)의 토대이다. 가정이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안보가 중심인 가훈을 삼아 가통으로 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가정교육이 실종되고 건전한 인성교육, 정서교육이 사라졌으며, 대화의 단절로 가정교육이 무너졌고 학교에서 남녀 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도 그 잘못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판국이니 나라사랑이나 안보의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번 보도되어 알려진 사실이지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지도 모르는 초·중·고등학생이 꽤 많다고 한다. 이 원인은 가정과 학교가 인간의 기본교육을 소홀히 한 것이 그 일차 책임이며 부실한 안보교육이 학교의 공교육 현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특히 청소년은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은 모두 부모의 은덕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킨 국군과 유엔군의 ‘피의 빛’이며 나라가 있고 안보가 있어야 가정도 있다. 우리는 현실을 바로 알고 청소년들에게 나라의 현실상황과 미래를 알게 하는 혜안(慧眼)을 가르쳐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의 연장선상에 있다. 6·25 전쟁이 발발한지 62주년이 되었다. 우리가 자유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우리 국군과 유엔 참전국 특히 미국의 도움과 희생의 대가로 이룩된 축복이다. 이들은 만나보지도 못한 나라, 들어 보지도 못한 코리아에 와서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은덕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전쟁에서 많은 국군과 유엔군의 인명 피해와 실종된 국군이 아직도 땅속에 묻혀 있는 현실과 그 중 유엔군 11개국의 2,300여 영령의 유해가 이 땅 남쪽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야 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란 대목에서 과거에서 배우

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설파하였다. 62년 전 이 땅에서 벌어졌던 동족상잔의 비극에서 역사적 교훈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안정은 가정의 토대 위에 비로소 안보의 중심이 선다. 자녀들도 이 나라의 장래를 가름하며 미래의 주인이 되므로 가정의 안보보육은 더욱 중요하다.

3. 역사를 통해 본 안보

반만년 역사를 통해 나라의 변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있게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의 애국심과 국력이 있었던 덕분이다. 고구려시대에 을지문덕(26대 영양왕 때)이 수나라 수양제의 30만 대군을 살수대첩에서 전멸시킨 것과 연개소문(고구려 28대 보장왕)이 당 태종을 안시성에서 쳐부셨던 승리는 병사가 모두 나라를 지키는 애국과 안보정신이 승리를 이끈 원동력이었다.

임진왜란에 있어서도 3대 대첩 중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대첩(1592)에서 일본의 주력 부대를 부셔 필사즉생(必死則生) 정신으로 이겼고, 진주대첩에서 김시민 장군이 성민(城民)과 함께 싸워 왜적을 물리쳤으며, 권율 장군과 부녀들이 함께하여 행주대첩(1593)에서 이겼다. 7년간의 긴 싸움에서 선조임금이 의주로 파천(播遷)하였던 것은 조정의 기강이 서지 않았으며 안보가 문란해진 것 때문이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 동인 김성일(金誠一)과 서인 황윤길(黃允吉)이 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가 전쟁을 살피고 귀국하였다. 김성일은 일본이 침략할 우려가 없다고 하였으며 황윤길과 상반된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조정이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희대의 정치가 울곡(栗谷)이 왜적의 침입을 대비하여 10만 병사의 양병설도 무용이 된 것은 위정자의 정확한 안보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이다. 그 후환(後患)으로 조선조 16대 인조 14년(1636) 청나라 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한 병자호란은 조정이 문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역사적 교훈이 된 것이다. 이런 오판이 오늘날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국회 여야대립의 상황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62년 전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불과 3일만에 서울을 빼앗겼던 우리는 3개월 만에 서울을 탈환하였다. 휴전 직후 지구상에서 못 사는 나라로, 예컨대 케냐보다 가난한 나라였고,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78불이었으며, 남의 나라 원조로 살았던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하고 소위 압축성장하였다. 지금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와 안정증진을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우리 나라를 서구의 민주반열에 올려놓았으며, 이제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넘는 세계 GDP 13위권에 달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뤘

다. 그 근본은 국군과 미국을 비롯한 참전 16개국 우방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일부 정치가 중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무고한 장병 46인과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북으로부터 아직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대북발언과 행동이 일치한 대응만이 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안보와 관련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 전쟁으로 빨려 들어간 역사적 사실이 있다. 즉 1930년대 독일 히틀러 정권이 독일의 재무장을 금지한 베르사이유조약을 어기고 이어서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일부를 무력으로 점령할 때마다 영국과 프랑스는 말로만 “추가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허점을 보고 폴란드를 침공한 연후에 영국과 프랑스는 그 때서야 대독선전(對獨宣戰) 포고를 하여 2차 대전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여 이 땅의 평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첨단무기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안보의식 없는 전략은 공중누각(空中樓閣)임을 잘 알아야 한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근본임을 자각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4. 6·25 전쟁이 남긴 교훈

6·25 전쟁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구상에 있게 한 것은 이 전쟁에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 등 인명피해 77만 6천명(유엔군 37,623명 사망자 중 미군 사망자 33,642명), 사망, 실종된 군인 16만 2,394명 등이며, 이 땅속에는 13만 3,192명(조선일보 2008년 6월 30일 박시한 국방부 발굴단장, 조선인터뷰 자료 인용)이 묻혀 있다.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다. 3년 1개월간 국군 14만 명, 민간인 250만 명(남한 100만 명, 북한 150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또한 320만 명의 피난민, 30만 명의 미망인, 10여 만 명의 전쟁고아로 사회적 기반이 흔들렸던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써 국가의 기간산업과 공공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재산 추정 손실액이 320억 불에 달하였다. 국토는 초토화되고 초근목피로 연명한, 그야말로 민족의 비극이었다. 이 전쟁이 발발할 당시 정확한 정보와 안보관이 미흡하였다. 그 결과 남한은 전쟁 준비는 고사하고, 무방비 상태였다. 인민군이 서울에 3일 만에 침입하여 그 여세를 몰아 일시에 낙동강까지 밀렸으며 급기야 정부가 부산으로 옮기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것도 바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웅변해 주고 있다.

이 전쟁 중 많은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을 딛고 이 나라를 구한 승전보가 있다. 그 중에서도 김종오 장군 휘하에 백마고지 전쟁의 영웅인 3용사는 1952년 10월 12일 10차례 전투가 벌어져 아군은 고지탈환을 위해 세 차례의 돌격에도 불구하고 적의 기관총으로 혼전만 거듭할 때

강승우 소위, 오귀봉 하사, 안영권 하사는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군인정신으로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탄우 속을 헤치며 단숨에 고지 정상으로 내달아 적의 기관총을 박살내고 장렬히 산화하였다. 이 육군 3 용사의 투혼에 사기가 충천하여 마침내 백마고지 주봉에 태극기를 꽂았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서울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들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대한민국이다. 또한 우리의 생명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전투의 위협 중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1950. 9. 15)은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적의 보급을 끊고 후방을 차단하여 우리의 민족 운명을 바꾸게 해 준 고귀한 승리작전이었다.

이 나라 청소년들이 6·25 전쟁에서 잊어서는 안 될 영웅담을 애국과 안보의식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일화로서 든다면 부산 ‘유엔기념공원’ 묘역에 호주의 도온트(J.P. Daunt)는 17세 나이로 유엔군 6·25 참전 용사 중 최연소 전사자이다. 이 소년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생을 꿈과 낭만으로 살아갈 나이에 하나뿐인 몸과 와보지도 않고 한국이란 이름도 모르며 싸울 이유도 없는 나라지만 다만 이 나라를 지킬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희생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숙연히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하고 그 정신을 본받아 나라 지킴에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정신이 바로 안보정신이다. 그리고 보도로 아는 바와 같이 한국을 너무 사랑한 윌리엄 해밀턴 쇼 미 해군 대위는 전쟁이 터지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나머지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1950년 9월 22일 서울 녹번동에서 전사하였다. 이 영웅은 한국인에게 영원히 남을 애국심을 가르쳐 준 인물로 추앙되며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 한편 62년 만에 방한한 참전 미국용사들이 천안함을 처음보고 “한국의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바로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안보관을 상기시켜 주었다.

최근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 보상금을 단돈 5천원으로 37년의 세월이 지난 최근야 현실적인 보상을 한다 하니 다행스럽지만 그 내용은 유족을 모욕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처사였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2000년부터 2011년 4월까지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부상자 752명에게 일인당 평균 5,300만 원 지급에 비해 6·25 전사자에게 차별된 보상을 한 것이 같은 국가가 한 예우였다. 그리고 1994년 생환한 조창호 소위에 대해 극진한 예우를 해 준 것은 규정에 없으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에게 최고 예우를 한 것이라면 6·25 전쟁 전사자들에게도 평등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호주정부는 한국에서 이민 온 월남전 참전 용사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웠던 연합군이며 호주참전 용사와 똑같이 월 2,200 호주달러를 준다. 말로만 애국을 부르짖는 것보다 국가안보의 방점(傍點)을 찍고 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 덕분에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공적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들은 묻고 있다.

5. 안보 지도자의 귀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그런데 자기보다 조국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다. 이 분들은 생명보다 조국과 민족을 선택하였다. 이 나라를 지킨 수호자가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지도자는 특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추앙을 받고 청사에 길이 남을 상징적 인물 두 분 중 한 분은 안중근 의사이다. 1909년 을사조약 체결에 분격(憤激)하여 일본 통감부 이토오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두에서 사살하였으며 동양평화론을 주창하였다. 또 한 분은 유관순 의사가 16세 이화학당 재학 중 3·1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아오내장터사건’의 주모자로 투옥되어 옥중에서 순직하였다. 두 분은 애국애족의 극치요 표상이므로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야 한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희생이 있었던 참사에 자진 구출작전에 뛰어든 한준호 준위는 권위수명에 위국헌신하는 산 실천인이며 안보정신의 화신이었다. 그리고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구니 정목 스님은 “나라가 있어야 절도 있다”하였으며 국가를 정당하게 지켜야 불교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의 힘은 제불호위(諸佛護衛)의 힘에 의존하며 불교를 국방의 기둥으로 여긴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겨 항일 독립운동을 하며 일경과 싸워 순직한 주기철(朱基徹) 목사 역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여수 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 8·15 광복으로 출옥하여 6·25 전쟁이 일어나 행동이 부자유한 나환자와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 의해 총살을 당하였다.

6·25 전쟁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시나브로 잊어가나 유엔군으로 참전한 영연방 4개국인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전사자의 넋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2010년 6·25 전쟁에서 숨진 단 한 사람의 용사를 위한 참전비 제막식을 위해 호곤 마그누스 노르웨이 왕세자 부부와 숨진 노르웨이인 트베잇의 딸 벤트 산다스 씨와 딸 노리가 참전비에 조화를 놓고 경의를 표하며 왕실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런 행사도 마련해 주어 영광스럽고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역만리에 안장된 분에게 ‘조국’을 선물하기 위해 노르웨이 돌로 만들어 가져온 것이다.

또 한 예는 6·25 전쟁에 전사한 새뮤얼 머레이(Murray) 상병 유해가 60년 만에 신원이 밝혀져 미 웨스트 버지니아주 고향 신스틴에 위치한 머사닉 묘지에 도착하여 의장대 사열 속에 최고의 예우로 국방부, 주정부, 재향군인회 관계자가 유해를 향해 경례를 하였으며 주 전역에 조기를 게양하였다. 미국 국민은 전몰용사에 대한 예우는 진심을 담아야 하며 두 가지 메시지를 명심한다고 한다. 하나는 “당신은 잊혀지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We will never forget you.)”라는 것

이다.

이 전쟁에서 벤프리트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각각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워커 중장이 자식과 함께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미국 지도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귀감이 되었다. ‘미국 국민 일동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생면부지의 나라, 일면식도 없는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하여 분연히 나섰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하였다.

세기의 주목을 끈 영국인 윌리엄 왕세손이 입은 붉은 코트와 검정바지의 육군 대령복장은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세 명의 전사자들이 속한 영국 육군 보병연대 옷이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의 가슴은 육군에 있다”는 감동적인 말을 하였는데 영국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애국자이다.

우리의 현실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많다. 정계는 여당, 야당과 군소정당으로 여당 내는 계파로 나뉘어져 마치 조선시대 사색당파를 방불케 한다. 나라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발전한다. 지도자는 참으로 위국헌신하고 애국충정의 인품을 갖춰야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말은 정부 안보 책임자 중 군 미필자가 많아 안보관에 상대적인 인식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게다가 국가 고위 공직자 중 2006년부터 2010년 5년간 군 경력을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해온 것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맹성이 요구된다. 김 모 전 공군참모총장이 2004년부터 2011년 초까지 20여 건의 2~3급 군사기밀을 빼 미국 록히드마운틴사에 내다 판 사건, 북한과 전면전 ‘공군전시계획’ 지침을 규정한 기밀 문건을 당번병이 쓰레기차에 버린 보안 불감증은 참으로 국민을 아연실색케 한다.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0월 13일 미국 연방 하원 본 회의장에서 여든이 넘는 존 코니어스 의원(82), 찰스 램글(81) 의원, 샘 존슨(81) 의원, 하워드 코블(80) 의원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여 이들은 눈시울 붉혔으며 이 대통령은 61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 노병들에게 다가가 경례를 하였다. 회의장은 박수소리로 떠나갈 듯 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신의를 지켜 나가고 있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이 처사는 미국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또 소박한 감동을 준 가곡의 여왕 백남옥 교수는 32년 교직에서 정년으로 퇴임하였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쪽지고 비녀를 꽂았다. 이로써 ‘한국가곡의 여왕’이라는 찬사와 함께 감동적인 말로써 “폴란드 태생 쇼팽은 연주여행을 하면서 항상 모국의 흙을 가지고 다녔다 한다. 폴란드는 전쟁과 식민의 경험을 가진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다는 쇼팽의 흙이 저에게는 한복이지요”라고 하는 한마디로 큰 심금을 울렸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맹국이다. 스티븐슨 주한 미국대사는 우리가 긴

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한·미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그의 저서에 한·미관계는 “최선을 다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영어 속담을 인용하여 우리의 미래에 귀감이 되는 말을 하였다. 우리의 현실은 좌시할 수 없어 ‘반부패국민운동연합’의 출범으로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성경구절은 애국과 안보를 전제로 하며,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지도자는 명심하여야 한다.

6. 교육자가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많다고 하여도 교육자는 존경을 받으며 교육자의 신뢰가 높은 편이다. 교육자는 이 사회의 비리와 무관하고 건전한 민중시민을 기르는 일에 전력을 쏟고 나라 발전에 역군을 기른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제도 이념이니 보수니 논란이 심하며 심지어 전교조가 어린 제자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리고 가 이른바 빨치산 교육이란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다니 우려할 바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더욱 우려스럽게도 “교실이 무너진다”는 기사에서 보듯이 교권이 추락되고 있다고 한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성인인 교수는 이 사회 양심의 보루이며 존경을 받는 인사이다. 교수는 진리 탐구를 위해 학문에 정진하고 국내외에서 혼신의 정열을 쏟아 부어서 교수가 된 신분을 잃지 않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 잡배들과 다른 바 없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큰 해독을 끼치게 된다. 교수는 일반사회와 다소 차별하여 대우도 양호하며 권위와 존경의 대상만으로도 큰 보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에 쓰여야 할 연구비를 일부 교수는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모 대학에 있었던 일로 4억 원을 개인용으로 쓴 사실이 감사결과에 드러났으며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빼돌려 교직원에게 황금열쇠, 교직원 수당, 교과부 간부에게 골프 유흥 접대비로 흥청망청 썼다는 보도, 그리고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를 자녀 용돈으로 쓴 교수하며, 대한전기학회 일부 교수와 연구원은 이미 발표한 외국 논문을 통째로 베끼다시피 한 표절논문을 국제 학회지 등을 통해 발표한 것이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이런저런 비리 현상이 불거져 “나라가 온통 썩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우리 사회는 매일매일 사회 일각에 비리와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 한때 이를 풍자하여 어느 인기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한 “모두가 도둑놈이다”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교수는 선비사상을 지녀야 한다. 학식은 물론 행동과 예의가 바르고 정의와 원칙을 알고

재부를 탐내지 않는 인품을 지닌 교수 곧 선비사상을 갖춘 인물이 많을수록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며 안보와 애국심을 숭상하게 된다. 교수에게는 나라의 간성을 기르며 기개(氣概)를 기를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교수의 자세가 중요하다. 나라의 진운은 훌륭한 교수다운 교수에게 맡겨져 있다. 교수도 그 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폐허 속에서 6·25 전쟁을 거쳐 원조를 받는 나라로부터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하여 오늘날 GDP 세계 13위에 G20 국가에 진입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배경은 열심히 일하고 선진 학문기술을 도입하여 신기술을 접목, 개발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그 동안 중동 열사의 나라에서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평화와 안정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과 교수의 역할이 컸다. 유태인은 세계인구 70억 중 0.25%인 1,500만인데 정치 경제 과학 문화에 영향을 끼쳐 노벨 과학상을 다수 배출한 것은 그들이 교육의 민족인 결과이다.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면 퀴리 부인은 조국 폴란드를 떠나 파리 유학을 가서 우라늄을 발견하기까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였다. 연약한 과학자가 망치를 갖고 광석을 부수고 부숴 드디어 우라늄을 발견한 것이며 또한 과학자는 학문엔 국경이 없다고 하나 학자에겐 조국이 있다고 한 말은 오늘날 나라 안보의 중요성을 외친 것으로 교육자에게 귀감이 된다.

7. 맺음말

대한제국시대에 접어들어 군사 강국의 '약육강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여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당하였다. 세계 2차대전이 종식되어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그 기쁨도 잠시, 미소협정에 의해 남북으로 분할되었고 아직도 분단된 채로 남아 있다. 요컨대 국력과 안보가 무너졌다. 곧 안보가 주권이며, 주권이 안보임을 절감한다.

1948년 대한제국은 정부수립 당시 1인당 국민소득 50달러에도 못 미쳤고, 세계 최빈국으로 콩고, 가봉 같은 국가보다 뒤졌다.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는 폐허가 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으며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서 남의 나라 원조를 받았지만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 이제 원조를 주는 선진국 발판을 딴고 있다. 우리 국민의 열정과 정력, 도전정신과 모험으로 선방(善防)하여 과학기술, 조선, 자동차, IT산업의 일부 산업에서 선진 수준과 겨루고 있으며, K-팝 등 예술에 한류 바람을 일으켜 세계 이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에서 9위로서 건국 63년 만에 미증유(未曾有)의 기록을 이루었다.

지금의 현실은 순풍(順風)만은 아니다. 국론에 있어서 정치권의 여야대립, 종북(從北) 편향 등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국정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지도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우국봉공(憂國奉公)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협동심, 공익정신, 기초질서를 갖춘 건전한 안보관을 갖게 하는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나 서양의 역사, 좁게는 세계 일류 기업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흥망성쇠(興亡盛衰)와 성자필쇠(盛者必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유비무환(有備無患)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곧 정신무장과 안보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